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치의 주도세력과 국내정치 동향

우 평 균 (강원대)

| 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러시아의 대내적인 정치현상들을 관류하는 흐름과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란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누가 러시아를 지배하는가'의 시각에서 러시아 국내정치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관점을 취하며, 푸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성향, 비판적 미디어 지배와 올리가르히(Oligarch)의 경영권 박탈 및 석유이권과 연관된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정치세력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은 대체로 푸틴과 동향인 삐쩨르부르그 인맥 및 실로비키(Siloviki)로 불리는 군대, 경찰, 국가보안기구 등 전직 국가 무력기구 출신자들로서, 푸틴 집권 이후 권력의 고위층에 다수 포진하고 서로 연결의 망을 형성하면서 집단적인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점과, 러시아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의 방향성이 이들의 뜻을 따라 결정되고 정책이 실행되어 왔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실로비키의 내부적 연결망이 얼마나 조직적이며,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투철한가, 혹은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정도로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푸틴 자신은 얼마나 이들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는 미지수이며, 대통령푸틴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들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이익을 집행하는

관리자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푸틴 집권 이후 구축된 국가 상층부의 권력 엘리트 구조는 공고하며, 푸틴 퇴임 이후 그의 영향력이 잔존하는 한 실로비키를 위시한 러시아의 새로운 권력집단의 퇴조는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I. 서론

2004년 푸틴(V.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러시아의 대외 정책의 향방과 국내정치 현상에 대해 서구, 특히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푸틴 제2기 집권하의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내정치에 있어 푸틴의 통치가 지방권력의 중앙으로의 예측, 언론 통제,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거대 석유회사 소유주 구속을 통한 사기업의 국가소유로의 강제 병합,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요소들과 더불어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의 의중대로 러시아가 일종의 ‘코포레이트 국가’(corporate state)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¹⁾ 러시아 권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주권 민주주의(sovereign democracy)’ 개념²⁾을 통해 푸틴 정부의 권력

1) *Financial Times*, June 19, 2006.

2) 기존에 러시아의 관제 이념가들은 러시아 민주주의를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 지칭하여 왔다. 관리 민주주의는 의회를 압도하는 대통령의 권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통제를 특징으로 하며, 동시에 선거의 국가 통제 및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강화, 친정부 사회세력의 조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 주권 민주주의는 주권과 민주주의가 둘 다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행사가 정당하며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고 국내적 안정을 이룩하는데 주요한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2000년대 러시아 정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주체가 되는 요인으로는 단연 푸틴대통령 개인으로 꼽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 국가(state)는 대통령(president)라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로 푸틴 대통령 1인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범위는 폭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책과 사고는 개인 의사의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고위관료들과 대통령 측근 그룹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세계관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행태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누가 푸틴시대 러시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는 현대 러시아 정치를 이해하는 관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러시아 정치는 물론 경제적 측면 및 대외 전략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상기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내적인 정치현상들을 관류하는 흐름과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란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누가 러시아를 지배하는가’의 시각에서 러시아 국내정치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관점을 취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정하는 문제, 비판적 미디어 지배와 올리 가르히의 경영권 박탈 및 석유이권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푸틴과 동향인 삐제르

배격한다. 그러나 실제로 주권민주주의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러시아는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고수할 것이며 다른 나라(서방국가들)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크렘린 당국은 2005년부터 주권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대통령 친위 여당격인 ‘통일 러시아(Unity Russia)’의 공식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정한구, “주권 민주주의와 러시아,” 『세종논평』, 제69호(2006.12.19).

부르그(St. Petersburg) 인맥 및 실로비키(Siloviki)로 불리는 군대, 경찰, 국가보안기구 등 전직 국가 무력기구 출신자들이 푸틴 집권 이후 권력의 고위층에 다수 포진하고 서로 연결의 망을 형성하면서 집단적인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러시아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의 방향성이 이들의 뜻을 따라 결정되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실로비키의 내부적 연결망이 얼마나 조직적이며,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투철한가, 혹은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정도로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점은 현대 러시아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세력을 파악하는데 관건이 되며, 푸틴 이후의 정치세력 관계 재편 및 유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푸틴과 실로비키: 관계와 특성

대통령 취임 이전, 푸틴의 경력을 크게 대별하면 KGB 시절과 일반 행정부서에서의 경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푸틴 자신이 언명했듯이 자신의 업무 능력 및 직업관과 국가관을 함양한 곳은 청년기부터 몸담았던 KGB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의 경력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소련사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제창되고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던 시기, 즉 소연방 말기인 1989년 독일 드레스덴(Dresden)에서 푸틴이 러시아로 돌아와 처음으로 몸담은 곳인 레닌그라드대학교 대외관계 자문역과 빼제르부르그 시정부의

부시장에까지 이르는 행정부서에서의 초창기 경력도 KGB 경력의 연장이었다.³⁾ 1990년 레닌그라드 대학에서의 주 업무는 KGB를 위해 학생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KGB의 전통적 임무인 외국인 학생을 감시하고 교수들의 대외활동을 파악하는 것이었다.⁴⁾

레닌그라드 대학교 교수 아나톨리 소프차크(Anatolii Sobchak)가 레닌드라드(Leningrad)시의 시의회 의장이 되자 푸틴은 KGB를 사직하고 소프차크의 정치담당고문이 되었다. 이어서 1991년 여름에 소브차크가 시장으로 선출되자 푸틴은 3명의 부시장 중의 한명으로, 동시에 신설된 대외관계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푸틴은 1996년 소브차크가 시장 재선에 실패할 때까지 부시장으로서 러시아 제2의 도시에서 2인자로 활동하였다. 푸틴이 시에 갈 당시에 KGB의 협력을 바라는 소프차크에게 KGB 레닌그라드 지부가 소프차크의 제자중의 한 명이었던 푸틴을 측근으로 보냈다는 견해가 있으며 당시에 푸틴이 처해있던 정황으로 보아서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⁵⁾

3) 푸틴의 레닌그라드에서의 경력을, 레닌그라드의 특성과 결부지어 개방적이고 서구지향적(Westernness)인 도시의 성향처럼, 개방성과 실용성을 익히고 경험한 시기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Blair A. Ruble, "The Two Worlds of Vladimir Putin: II. Leningrad," *Wilson Quarterly* (Spring 2000), pp. 14-25; Samuel Charap, "The Petersburg Experience: Putin's Political Career and Russi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1, No. 1(January/February 2004), pp. 52-62.

4) Andrew Jack, *Inside Putin's Russia* (London: Granta Books, 2005), pp. 66-67.

5) 소브차크가 이미 사망하여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에 왜 소브차크가 푸틴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푸틴의 가까운 친구들은 이미 푸틴이 KGB생활에 환멸을 느꼈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세계에 몸담고 싶어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에 다른 해석은 소브차크가 1990년대 초반의 무질서와 불안이 만연하던 시기에 급속히 성장하는 범죄적 부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안 파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로 푸틴을 선택했다는 설이다. Олег

푸틴의 레닌그라드 시에서의 경력은 그가 러시아의 이른바 개혁 세력과 밀접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었다.⁶⁾ 특히 러시아 개혁파의 기수인 아나톨리 추바이스(Anatoly Chubais)와의 관계 설정은 사실상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근본적인 계기를 제공한 중대한 만남이었다. 추바이스는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유화와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경제전문가로서 쌍뜨 빼제르부르크 인맥⁷⁾의 대부였으며, 옐친 집권 이후 권력의 핵심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과 권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물이었다. 추바이스는 옐친 정부에서 부총리겸 러시아국가자산위원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도 쌍뜨 빼제르부르크에서 경제담당 고문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푸틴과 이미 동료로서 일을 했었고, 각자의 주장과 달리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⁸⁾

푸틴의 경력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상기한 KGB와 추바이스 그룹과 같은 개혁파로 불리는 신지배층으로 압축된다. 이 점은 푸틴이 1998년 7월 KGB의 기능을 이어받은 연방보안국(FSB) 국장으로 취임

Влотский,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дорога к власти(Москва: Осмос Пресс, 2002), с. 358.

6) Ю. Борцов, Владимир Путин(Москва: Ростов-Дону(Феникс), 2001), сс. 110-131.

7) 푸틴 집권 이전에는 아나톨리 추바이스가 빼제르부르크 인맥의 대부로 여겨졌는데, 푸틴 집권 이후에는 푸틴의 고향인 쌍뜨 빼제르부르크와 연고를 갖고 있는 지배엘리트 인사를 지칭하는 ‘빼제르썬이’(Петершцы)라는 권력 그룹으로 통칭되었다. Pavel K. Baev, “the evolution of putin’s Regime: Inner Circles and outer Wall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1, No. 6(November/December 2004), p. 7.

8) Ian Bremmer, “The Russian Roller Coaster,” *World Policy Journal*, Vol. 20, No. 4(Winter 2003/2004), pp. 22-29.

한 이후에 구축한 자신의 인맥 중에서 핵심은 빼제르부르크 출신이며 동시에 KGB 출신인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이들을 통칭하여 ‘실로비키’(혹은 ‘체키스틱이, chekisty)로 부르게 된다. 힘센 남자(mighty men or power guy)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실로비키는 무력과 관련이 있는 관공서 출신자를 통칭하는 말이었지만 푸틴정부하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⁹⁾ 러시아의 정치 분석 기사에서는 관료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경향성’(tendency), 혹은 ‘분파’(faction)로 대개 언급되며,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짜르 러시아와 소련 시대에 풍부한 사례들이 있다.¹⁰⁾ 실로비키는 권력 부서들(power ministries)에 있는 고위급 관리들 뿐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부서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 정치인, 기업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주를 지칭하기도 한다. 옐친 집권기에는 옐친의 경호실장이었던 코르자코프(Aleksandr Kozakov)가 KGB 출신의 실로비키였고, 두 명의 총리, 프리마코프(Yevgeniy Primakov)와 스테파신(Sergei Stepashin)이 KGB와 연방보안국 출신의 대표적인 실로비키이다.

실로비키와 별도로 권력 주변에 포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이른바 ‘시미야’(Семья, 가족)로 불리는 그룹을 들 수 있다.¹¹⁾ 시미

9) 이 시기에 형성된 크레믈린과 실로비키의 핵심인 KGB와 연방보안국 출신인사들의 연합을 일컬어 ‘크레믈린-류반카 연합’(The Kremlin-Lubyanka Alliance)으로 부르기도 한다.

10)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December 12, 2003: 실로비키에 대한 분석은 Peter Raddaway, “Will Putin Be able to Consolidate Power?,” *Post-Soviet Affairs*, Vol. 17, No. 1(January-March 2001), pp. 23-44; Peter Raddaway, “Is Putin’s Power More Formal than Real?,” *Post-Soviet Affairs*, Vol. 18, No. 1(January-March 2002), pp. 31-40. 참조.

11) 피터 러대웨이(Peter Raddaway) 등은 시미야 대신 올리가르히를 실로비키와 쌍벽

야 그룹은 원래 옐친 집권기에 옐친의 가족을 포함한 측근 그룹은 특별한 이익공동체라는 이유로 매스컴에서 부른 데에서 그 용어가 유래한다. 시미야는 러시아어로 ‘가족’이라는 의미로 ‘옐친 패밀리’를 뜻한다. 시미야 그룹은 옐친 자신과 옐친의 둘째딸 타찌야나(Tatiana Diachenko)와 그녀와 결혼한 전 대통령 행정실장 유마셰프(Balentin Yumashev)와 파벨 브로딘(Pavel Vrodin), 베레조프스키(Boris berezovsky),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등의 권부 인사들과 경제인들 가운데 러시아 알루미늄 사장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 금융업의 MDM그룹 사장 안드레이 멜리니첸코(Andrei Melinichenko), 우랄 금속회사 사장 이스칸데르 마흐무도프(Iskander Maxmydov) 등이 중심인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 동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러시아를 움직이는 새로운 권력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미야 그룹은 옐친 집권기에는 대통령의 인사와 이권장악에 있어 독보적인 위력을 떨쳤지만, 푸틴 집권 이후 푸틴 친위세력인 실로비키와 대결하게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실로비키와의 권력투쟁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반면에 푸틴은 실로비키의 중추인 물이면서 실로비키와 시미야를 초월하여 국정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¹²⁾

을 이루는 권력 집단으로 지칭하였다. 2003년 상황에서 올리가르히는 분명히 권력 집단이었지만 푸틴 2기에 이르러서는 힘을 잃은 상태이기에 2006년 상황에서는 올리가르히와 옐친 시대의 시미야와 그 친분 집단을 합친 시미야 개념이 더 적합한 듯하다. Peter Reddaway, Gail W. Lapidus, Barry W. Ickes, Carol Saivetz, and George Breslauer, "Russia in the Year 2003,"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1(January-March 2004), pp. 1-45.

12) Елена Трегубова, *БайкиКремлевского дигера*(Москва: Объявление Маргинем, 2003): "Позвольте лошадям, которыми управляю, и здан"

실로비키를 의미하는 다른 용어인 ‘빠쁘치키’(Папучики, 빼빼르부르그에서 온 사람들)는 FSB와 기타 정부의 무력 장악기관의 구성원 출신들로서 빼빼르부르그 출신이라는 경력을 공유한다.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는 ‘이진노미이실레니키’(Изиномышленики)는 실로비키-소라트니키(Силовики-соратники, 무장력을 갖춘 정부기관) 이외에 빼빼르부르그 출신의 ‘시장 가치’(market value)를 신봉하는 젊은 경제인들과 행정 관료들 중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즈프롬(Gasprom)의 최고경영진에 오른 알렉세이 밀러(Alexei Miller)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잠재적으로 유망한 회사나 은행(중역진)도 FSB의 영향권 내에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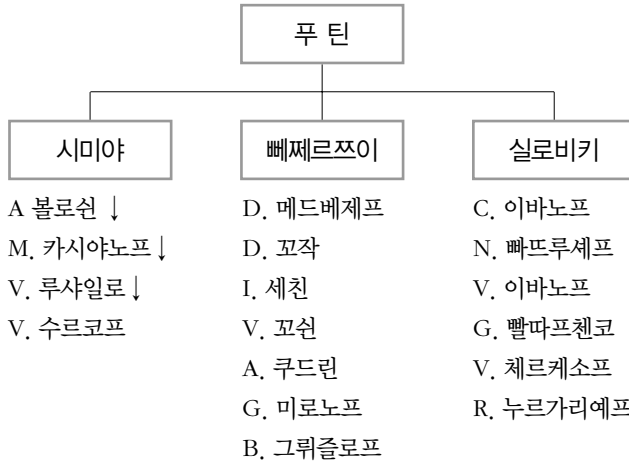
실로비키 그룹의 연합세력은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강조하는 ‘국가주의’(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가수다르스트벤노스찌)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학자나 지식인들로부터도 충원된다. 이 점은 실로비키의 세계관과 이념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공공정책 전문가 세르게이 야스트르젠프스키(Sergei Yastrzhembskii), 크렘린 대변인 미하일 레온티예프(Mikhail Leontyev), 평론가 세르게이 마르코프(Sergei Markov), 스타니슬라브 벨코프스키(Stanislav Belkovsky)가 대표적이며, 이들이 황적으로 단결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실로비키 내의 각각

ия горят”(December 2, 2003) <http://www.polit.ru>. (검색일: 2006년 1월 25일).

13) 릴리아 쉘브쨌바(Lilia Shevtsova)는 실로비키가 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나 알렉세이 쿠드린(Alexei Kudrin) 같은 자유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멘탈리티를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들과 제휴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즉 자유주의자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로비키는 리버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피(blood)를 갖고 있기에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Lilia Shevtsova, *Putin's Russia*(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 pp. 166-167.

의 영역(segments) 내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¹⁴⁾

〈그림1〉 푸틴 팀의 (명령) 구조와 주요 인물



출처: О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 элиты*(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4), с. 262.

실로비키의 세계관을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공산당 지배구조에서 공산당만을 탈각해버리면 오늘날의 실로비키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즉 실로비키는 러시아 국가 지상주의자들 내지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대변자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우파 및 좌파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상이한 것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신봉한다는 점일 것이다. 실로비키의 정책 성향은 국가주의 경제 모델과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며, 산업정책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선호하고,

14) Pavel K. Baev, *op. cit.*, pp. 6-7.

전략산업에 있어 국유화와 국가통제를 강조한다. 또한 2010년까지 GDP 2배 증가를 제시한 푸틴의 목표 지지, 외국기업들의 기술적, 경영 기법 도입 선호의 입장을 갖고 있다.¹⁵⁾

실로비키는 올리가르히(Oligarch)로 불리는 신흥재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러시아의 지배엘리트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올가 크뤼쉬타놉스카야(Olga Krishitanovskaya)에 따르면 대통령부 직원의 50~70%가 실로비키이며, 1993년 엘친 시기에는 이들이 11%였으나, 2002년에는 러시아 (권력)엘리트의 25%가 군부와 보안기관 경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적인 부문으로 진출하더라도 과거의 동료와 밀접한 연계를 유지한다. 실로비키는 국가의 경제적 파이 중에서 자신들이 더 큰 몫을 획득하는데 가담하므로, 서구적 맥락에서의 관료적 분파보다는 훨씬 강력한 이권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는 지지하지 않으나, 다시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가능하다면 치안조직이 정치영역에서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⁶⁾

크렘린의 중추세력인 실로비키는 푸틴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크게 본다면 푸틴 역시 범실로비키 세력의 일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푸틴은 실로비키와 다른 세력, 이를테면 시미야 그룹과

15) 서동주, “러시아 푸틴정부의 인맥정치와 실로비키: 한·러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국제문제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제6권 제4호(2006 겨울), p. 9.

16) О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Режим Путина: либеральная милитократия?” *Pro et Contra*, 7-4(Осень 2002), с. 158-180; Olga Kryshstanovskaya and Stephen White, “Putin’s Militocracy,” *Post-Soviet Affairs*, Vol. 19, No. 4(October-December 2003), pp. 289-306; Arkady Ostrovsky, “Is Russian Democracy becoming an Illusion?” *Financial Times*(February 24, 2004).

대립할 때 실로비키만 일방적으로 편들 수 없는 입장이며, 이와 같은 입장을 종종 표명하지만 푸틴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실로비키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푸틴의 경우, 실로비키적 관점에 실용주의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관찰자도 있다.¹⁷⁾ 대외정책의 경우, 푸틴의 실용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지만, 집권 이후 대내정책에서 푸틴이 보여준 면모는 사실상 실로비키의 관점과 일치한다. 실로비키는 직업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며, 덜 부패하고 국가와 푸틴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권력 선호의 집단으로 나타난다.¹⁸⁾ 이들은 푸틴 대통령 집권 기간을 통하여 국가 고위 관료층으로의 진입은 물론이고 금융, 상업 및 시민사회의 주요 부문에 입지를 굳힘으로써 다수의 전문가 층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Ⅲ. 정당 재편과 지방 통제

과거 옐친 정부 시기에는 사실상 프리마코프(E. Primakov) 내각을 제외하고는 의회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¹⁹⁾ 반면에 푸틴 정부에서는 확고한 대통령 지지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 때문에 정권

17) Samuel Charap, *op. cit.*, pp. 58-60.

18) 서동주, 앞의 글, 2006, pp. 9-10.

19) В.Я. Гельман, "Политическая оппозиция в России: вымирающий вид," *Полис*, № 4(2004), с. 52-69; Edward Morgan-Jones and Petra Schleiter, "Governmental Change in a President-Parliamentary Regime; The Case of Russia 1994-2003,"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2(2004), pp. 132-163

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 때문에 과거처럼 고심할 필요가 없어졌고, 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채택되어 시행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 우선 정당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21일, 러시아 하원에서 푸틴이 제안한 지 반년 만에 정당법이 채택되었다. 정당법은 정당으로서 등록된 조직만이 지방이나 연방 수준의 모든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정당이 되려면 러시아의 7개 연방 관할구역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며, 연방관할 구역마다 최저 일백 명을 확보해야 하고 전체 당원 수가 1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결과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1백 88개 정당 중에서 대부분이 소멸될 운명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군소 정당들이 합쳐서 단일정당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연합을 맺는 등 강력한 정권의 지배력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도를 취했다.²⁰⁾ 러시아 학자 쉘르박(Шербаков)은 이처럼 러시아에서 작은 정당들이 연합을 통해 거대정당화하는 형태를 ‘정당 가족’(семьи партии)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였다.²¹⁾

정당법을 통해 규모가 작은 정당들을 개편하고자 하는 푸틴정부의 의도는 선거 결과 등장하는 군소정당들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소규모 정당의 존립 근거를 없애므로써 정당을 국

20) Jeffrey Mankoff, “Russia’s Weak Society and Weak Stat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0, No. 1 (January/February 2003), pp. 40–42.

21) А.Н. Шербаков, “Коал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их партий,” *Полис*, № 1(2002), сс. 118-133; Н.В. Работяжев, “Феномен праволевой коалиции в России: Фрон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пасения,” *Полис*, № 4(2004), сс. 80–92.

가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었다. 2000년 말, 푸틴은 최초로 법안의 구상을 제시하면서 범죄자들이 자금을 제공해서 정당을 만들게 하고 직접 의원이 되어서 불체포 특권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런 범죄를 없애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정당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정당에 대한 개인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허가하면 정당을 통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인현금에 반대했다. 시민 한 명이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현금으로 2천 루블(약 7만 8천원), 은행 입금을 통해서는 200만 루블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50%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및 30% 이상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정당에 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²²⁾

정당법은 푸틴 정부의 노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법안으로 정치적 혼란의 초래를 국가가 방지하고 국가의 통제 내에서 정당 활동과 운영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축재한 올리가르히와 부패 재벌 및 산업 마피아와 연계한 정치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실로비키와 푸틴의 견해가 투영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이 반영된 정책으로는 지방권력에 대한 중앙 통제의 강화 현상도 거론할 수 있다. 옐친 집권 시기에 모스크바 중앙을 제외한 지역의 전 부문, 즉 자치 공화국, 자치 지역, 변경주, 시 등의 단위에서 연방주체들은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방의 중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³⁾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국정

22) Moscow(AP), "Russia Political Parties Law Backed," December 28, 2000, <http://www.cdi.org/russia/johnson/4712.html>(검색일: 2006년 5월 15일)

슬로건인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고, ‘수직적 권력’(power vertical)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의 강화와 지방권력의 약체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푸틴 대통령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로 구성된 상원을 개편하여 단체장들에게는 형식적인 국가평의회에 귀속시키고 입법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다. 동시에 연방을 7개의 대통령 직속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역에 대통령 전권 대행을 두어 지역을 관할·감독하도록 했다.²⁴⁾

러시아의 지방권력은 옐친 시기부터 복잡한 요소들을 안고 있었다. 경제적 이권이나 마피아와의 연관 등 부패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지방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지사와 단체장의 교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의 알력은 단시간 내에 표면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사례는 2000년 10월의 크루스크(Krusk) 주지사 선거였다. 중앙정부가 지지하는 후보가 공산당 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정권이 지지하는 단체장을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2001년 연해주 지사 선거에서도 현지사였던 나즈드라첸코(Nazdrachenko)의 재출마를 봉쇄하기 위해 국가어업위원회 의장이라는 정부의 직책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인 극동관할구역 대통령 부특사 겐나지 아파나센코(Gennady Afanashenko)는 1차 투표에서 당선권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좌초되었고, 결국 정권 측은 여기

23) А.А.Галкин, П.А.Федосов, С.Д.Валентей, В.Д.Соловей, “Эволю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федерализма,” *Полис*, №3(2002), сс. 96–128.

24) 푸틴의 실로비키 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연방 관구의 장을 임명한 조치에서 나타난다. 7명의 대통령 전권대표 중 5명이 실로비키였다.

에서도 연해주 지방의 권력장악에 실패하였다. 단, 2002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주의 지사 알렉산드르 레베지(Aleksandr Lebed)의 사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타이므르(Taimyr) 자치관할구역 지사인 알렉산드르 프로포닌(A. Proponin)의 당선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가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이 밖에 지방 단체장의 3선을 둘러싼 문제의 발생과 썬트 삐쎬르부르그 시장 선거를 둘러싼 정부의 개입과 성공이 있었다.²⁵⁾

푸틴 대통령의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할권 확대에 대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의 지방권력과의 불화는 이어졌지만, 중앙정부의 일련의 조치 시행 이후 단기간 내에 지방이 순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데 대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엘리트 시기 동안 지역 엘리트들의 공통적인 경험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대부분의 지역들은 러시아의 시장 전환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중앙이 의도하는 보조금 지급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쉽게 푸틴의 조치에 저항하지 못하는 원인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사가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발판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줌으로써 오히려 당국의 조치에 호응

25) Jeffrey W. Hahn, "St. Peterberg and the Decline of local Self-Government in Post-Soviet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2(April-June 2004), pp. 123-127.

26) Alla Chrikova and Natalya Lapina,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Stability in the Russian Regions," Archie Brown, eds.,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A Reader*(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234-266; НМ Добринин, "Российские федерализм: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11(November 30, 2003), сс. 85-89.

하는 자치단체장도 있음으로 해서 푸틴이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안정화되고 있다.²⁷⁾ 결과적으로 엘친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푸틴 스타일의 지배 양식이 중앙-지방 관계에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지역의 엘리트가 안정되고(stable) 예측 가능한(predictable) 게임의 규칙대로 행동할 것을 푸틴이 원하였고, 그대로 실행한 결과라는 설²⁸⁾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푸틴이 권력의 증추부에 포진시킨 실로비키의 사고이기도 한 것이다.

IV. 비판적 미디어 지배와 석유이권 통제

푸틴 정부의 국가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올리가르히들과 비판적 미디어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증폭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텔레비전 방송망이 확대되었으며 채널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전국방송을 하는 3대 텔레비전 방송국이 중요한데, 국영방송인 러

27) 반면에 러시아에서의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립하려는 시도가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와 이미 진척된 러시아의 경제·사회적 개방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견해도 러시아 국내에서 개진되었다. Т.Е. Ворожейкина, “Государство и общество в России: исчерпание государств оцентричной матрицы развития,” *Политс* №. 4(2002), с с. 60-65.

28) J. Paul Goode, “The Push for Regional Enlargement in Putin’s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3(July-September 2004), p. 253; 스톤너-웨이스는 1990년대에 지역이 연방 중앙에 대해서 누렸던 자율성은 깨지기 쉬운 것으로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Kathryn Stoner-Weiss, “Central Weakness and Provincial Autonomy: Observations on the Devolution Process in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15, No. 1(February-March 1999), pp. 87-106.

시아 텔레비전(RTR, 에르페에르), 반관영 반 민영 방송인 러시아 공공 텔레비전(ORT, 오에르페르), 민영방송인 독립 텔레비전(NTV, 엔페베)가 해당된다.

〈표1〉 1999년 방송국의 잠재적 권역(coverage), 적용율, 시청자 선호 조사

채널	방송권역 (잠재적)	권역비율 (상반기)	권역비율 (하반기)	선호도 (12월 24-26)
ORT	98	87	88	41
RTR	95	72	77	13
NTV	72	59	58	25
TV6	58	32	37	4
TV-Center	39	15	19	no data
Kultura	36	10	13	no data
CTC	35	16	19	no data
TNT	32	12	15	no data
REN-TV	27	13	11	no data

출처: Ivan Zassoursky, *Media and Power in Post-Soviet Russia*(Armonk, New York: M.E.Sharpe, 2004), p. 196.

푸틴정부가 시작될 때 ORT와 NTV는 각각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 블라미디르 구신스키 등(V. Gusinski) 두명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의 지배 아래 있었다. 올리가르히들은 휘하의 미디어를 정권당국이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구신스키의 경우, 옐친 정부에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특히 선거 국면에서 옐친 지지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정권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옐친이 물러나고 치러진 2000년의 대선에서 자유주의 정당 야블로코의 당수, 그레고리 야블린스키(G.

Yablinsky)를 대통령후보로 밀어 그가 패배한데에서 푸틴정권과의 악연이 시작되었다. 구신스키에 대한 최고검찰당국의 추방활동이 시작된 것은 푸틴정권이 발족된 직후인 2000년 5월이었다. 결국 NTV의 주식 46%를 소유하고 있는 가스프롬 미디어가 전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NTV를 접수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인정하지 않는 사원들에게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 구신스키는 자신의 소유 주식을 미국 CNN의 창설자 테드 터너(T. Turner)에게 양도하고 스페인으로 출국하였다. 이후에 러시아의 전국 방송 중 유일한 민간 채널이었던 NTV는 기존의 시사 풍자와 정부 비판으로 인기를 모으던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²⁹⁾

베레조프스키는 구신스키와 달리 2000년 대선에서 푸틴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다. 베레조프스키는 텔레비전 방송국 ORT 뿐만 아니라, 「네자미시마야 가제타」, 「코메르산트」, 「노보예 이즈베스티야」 등의 신문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매체들은 영향력의 측면에서 ORT에 비교될 수 없었다. 대선 국면에서 푸틴을 지지했던 베레조프스키가 푸틴정부에 공공연히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5월 푸틴이 상원개혁법안을 제출했을 때부터였다. 베레조프스키는 당시에 하원의원의 신분이었는데, 상원개혁법안을 공개비판하고 7월에 하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베레조프스키는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그 자신이 당당하게 푸틴에 저항한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려고

29) 미디어와 시민사회에 대한 논쟁은 Sarah Oates, "Media, Civil Society, and the failure of the Fourth Estate in Russia," Alfred B. Evans, Jr., Laura A. Henry, and Lisa McIntosh Sundstrom, *Russian Civil Society: A Critical Assessment* (Armonk, New York, 2006), pp. 57-64. 참조.

하였다.³⁰⁾ 베레조프스키 자신은 푸틴정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건전한 야당을 조직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ORT는 2000년 여름에 발생한 원자력잠수함 쿠르스크호(Kursk) 침몰사건에서 대응이 늦었던 푸틴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9월에 베레조프스키가 자신의 ORT 관련 주식을 포기하고 14명의 인사들에게 위탁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공표하면서 ORT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국 베레조프스키는 2001년 ORT 주식의 49%를 로만 아브라모비치(R. Abramovich)에게 양도하고 일단 ORT에서는 경영권을 포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ORT 경영진은 정권의 압력에 순응하게 된다.

이밖에 모스크바 주변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TV6도 석유대기업 루크오일(Luk Oil)의 개입을 통해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다. TV6 역시 베레조프스키가 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 놓여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이었지만 1년을 못 넘기고 폐쇄되고 국영스포츠 전문방송으로 전환되었다.³¹⁾ 몇몇 올리가르히와 푸틴정권과의 관계악화의 계기는 2000년 2월 푸틴이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올리가르히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자가 합의한 사항과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발언, 즉 올리가르히가 정치세계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올리가르히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올리가르히의 비즈니스에 개입하거나 자원산업을

30) Ivan Zassoursky, *Media and Power in Post-Soviet Russia*(Armonk, New York: M.E.Sharpe, 2004), pp. 196-204

31) Ibid, pp. 206-214.

재국유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겼다고 판단한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³²⁾

러시아 국내의 석유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는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매개로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푸틴 집권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안이다. 2007년 5월 현재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Gazprom)의 회장은 푸틴의 비서실장 출신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Dmitry Medvedev) 제1부총리가 맡고 있으며, 메드베제프 부총리는 푸틴의 쌍뜨 빼제르부르크 대외부시장 시절의 동료이며, 2000년 대선 캠프를 이끌었다. 이고르 세친(Igor Sechin) 크렘린 행정부실장도 러시아 제2의 석유회사, 로즈네프트(Rosneft)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그도 역시 푸틴의 쌍뜨 빼제르부르크 시절 동료이며 구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이다. 이와 더불어, 푸틴대통령 행정부 각료 11명이 6개 국영기업의 회장직과 12개 국영기업 간부직을 맡고 있으며, 고위 관료 15명이 6개 국영기업 회장과 21개 국영기업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정부 개입의 분수령이 된 2003년의 유코스 사태는 또한 외국자본의 러시아 자원 소유에 대한 지분 매집에 제동을 거는 계기였다. 유코스는 2003년 4월 22일 같은 거대 석유기업인 시브네프찌(Sibneft)와 합병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으며, 새로운 합병 기업 유코스 시브네프찌(Ukos Sibneft)는 주식 25%를 미국 석유기업 엑슨 모빌과 셰브론텍사코에 매각하기 위해 비밀리에 교섭에 벌이고 있었으며, 이 사실이 실로비키에게 포착되어 실로비키로 하여금 빨리 행동으로 옮기게끔 작용하였다.

32) *Известия*, July 23, 2000.

게다가 시브네프찌와의 합병은 유코스가 시미야 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실로비키는 ‘크렘린내 쿠데타’로 까지 일컫는 행동을 감행하였다.³³⁾ 결국 유코스 사태를 포함하여 푸틴 정부가 드러난 행태로 볼 때, 국가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에너지 부문의 올리가르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는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부문으로 이전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원유 가격 폭등 현상에 편승하여 국가가 풍부한 자원을 독점한 뒤 경제발전의 토대로 삼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³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와 정치의 재편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며, 유력한 산업의 국가독점 내지는 국가지주회사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실로비키는 유코스 사태를 기점으로 행동에 들어갔으며 이런 움직임은 집권층 내부에서의 반발도 사계 되지만³⁵⁾ 실로비키의 의도대로 결과가 관철된다. 당국은 유코스 사건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반올리가르히 정서를 결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이 여세를 다가올 선거에서 몰아 여당 계열의 정당들이 압승을 하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규모가 커진 국영기업들은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33) Peter L. Clateman, “Yukos Affair, Part VII: Review of the Criminal Sentence and Appeal,” March 29, 2006, <http://www.cdi.org/russia/johnson/2006-78-19.cfm>(검색일: 2006년 4월 30일).

34) 우평균,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일본-중국간의 경쟁과 한국의 진로,”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제2호(2005.12), pp. 25-46.

35) 푸틴 1기의 총리 카시야노프와 전력독점기업 통일에너지 시스템즈(UES) 사장인 정권의 2인자, 아나톨리 추바이스가 2003년 10월 31일 최고 검찰청의 유코스 주식 압류에 대해 반발한데서 실로비키에 대한 적대 의식이 표명되었다. 대통령 행정실장 알렉산드르 볼로신도 실로비키가 기획한 호도르코프스키 체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행정실장직을 사임하였다.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³⁶⁾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런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구조개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기업국유화와 함께 개방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례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없앴으로써 가즈프롬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이 49%까지 늘었다고 한다.³⁷⁾

결국 새로운 러시아의 지배세력은 지난 1990년대의 옐친 통치하의 러시아의 정치적 지형과는 다른 형상을 주도해내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새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과거와 달리 변하고 있는 요소들과 함께 과거로의 복귀라기보다는 새로운 러시아적 정체성, 특히 국가성과 결부된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1990년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한 자유주의적 개혁의 실패와 이에 대한 대중의 실망을 반영한 러시아 정치의 구도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³⁸⁾

V. 결론

러시아의 2000년대는 푸틴대통령의 집권과 동시에 개막되었으며 집

36) 일례로 2006년 7월 19일 푸틴대통령은 가즈프롬에 가스의 수출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스수출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통제정책을 한층 강화시켰다.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July 19, 2006.

37) *Financial Times*, June 19, 2006.

38) 왜소한 것보다 '절대적인 힘' (great power)을 원하는 러시아 대중들의 정서가 새로운 거대정당을 선거를 통해 만들어냈으며, 여기서 자유주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December 12, 2003

권 이후의 대내외 정책은 1990년대 옐친 대통령 통치의 시기와는 여러 모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내적으로 러시아 국가의 일체성 확보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주요한 집단과 개인들의 행태를 제어하고 그것을 반러시아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것으로 환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정부비판적인 내용이 지나치면 러시아의 국익에 저해되며, 러시아 발전을 원치 않는 외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앞서게 되었다. 외국, 특히 서구내지는 미국과 일체화된 시각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가가 언론을 인수하여 러시아를 공격하고 외국을 이롭게 하는 자신의 시각을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고 대중들에게 무감각하게 내뿜을 시킨다고 보는 시각이 집권세력 내에 부각되었다. 또한 국가의 주요 산업과 미디어 매체를 소유한 올리가르히가 정치적으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국회에 진출하거나, 정치권에 자신을 대변해 줄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력으로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데에서 집권세력이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미미한 세금만 내는 올리가르히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자원을 외국기업에 팔아넘길 수 있는 행동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영일선에서 후퇴시키고 믿을만한 소유자에게 넘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긴다. 이 소유권 이전에는 정치권력 내의 세력 간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이것은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적 지형이 각종 이권이 수반되는 구조라는 것을 반영한다.

러시아 정치세력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빼제르부르그 인맥 및 실로비키로 불리는 군대, 경찰, 국가보안기구 등 전직 국가 무력기구 출신자

들이 푸틴 집권 이후 권력의 고위층에 다수 포진하고 서로 연결의 망을 형성하면서 집단적인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면서 러시아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의 방향성이 이들의 뜻을 따라 결정되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실로비키의 내부적 연결망이 얼마나 조직적이며,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투철한가, 혹은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정도로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푸틴 자신이 얼마나 이들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며, 푸틴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들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이익을 집행하는 관리자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정치체계의 속성은 푸틴 등장이후 비교적 명확하게 특징을 드러내왔고 나름대로 안정화의 방향성을 유지해왔지만 경제적 진로는 정치에 비해 불분명한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세력들에게 나라를 개방하는, 중국식 모델의 러시아식 버전(Russian version of the Chinese model)을 시도하고 있다”거나³⁹⁾, 일각에서는 푸틴은 경쟁적인 시장에 거의 관심이 없고, 대신에 국가통제 경제, 혹은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형식으로까지 표현되는 통제형 경제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⁴⁰⁾

실로비키 그룹을 위시한 푸틴 대통령 집권 시기의 국가 상층부의 권력 엘리트 구조는 2000년대를 통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러시

39) *Financial Times*, September 27, 2004.

40) Peter Rutland, “Putin’s Economic Record,” Stephen White, Zvi Gitelman and Richard Sakwa, eds., *Developments in Russian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 202–203.

아 현실에 대한 진단 및 러시아의 위상과 지향점 등 미래진로에 있어 공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중들과 공유하는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대중들과 일치하는 이와 같은 정서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의 정치질서는 상당기간 동안 현재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를 매개로 국부가 증대된 러시아의 위상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 및 세계적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와 러시아 정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서동주, “러시아 푸틴정부의 인맥정치와 실로비키: 한·러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국제문제연구』, 제6권 제4호(2006 겨울).
- 우평균,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일본-중국간의 경쟁과 한국의 진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제2호(2005.12).
- 정한구, “「주권 민주주의」와 러시아,” 『세종논평』, 제69호(2006.12.19).
- Baev, Pavel K., “the evolution of putin’s Regime: Inner Circles and outer Wall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1, No. 6(November/December 2004).
- Bremmer, Ian, “The Russian Roller Coaster,” *World Policy Journal*, Vol. 20, No. 4(Winter 2003/2004).
- Charap, Samuel, “The Petersburg Experience: Putin’s Political Career and Russi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1, No. 1(January/February 2004).
- Chrikova, Alla, and Natalya Lapina,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Stability in the Russian Regions,” Archie Brown, eds.,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A Reader*(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Clateman, Peter L., “Yukos Affair, Part VII: Review of the Criminal Sentence and Appeal,” March 29, 2006, <http://www.cdi.org/russia/johnson/2006-78-19.cfm>(검색일: 2006년 4월 30일).
- Goode, J. Paul, “The Push for Regional Enlargement in Putin’s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3(July-September 2004).
- Hahn, Jeffrey W., “St. Peterberg and the Decline of local Self-Government in Post-Soviet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2(April-June 2004).
- Jack, Andrew, *Inside Putin’s Russia* (London: Granta Books, 2005).

- Kryshtanovskaya, Olga, and Stephen White, "Putin's Militocracy," *Post-Soviet Affairs*, Vol. 19, No. 4(October-December 2003).
- Mankoff, Jeffrey, "Russia's Weak Society and Weak Stat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0, No. 1(January/February 2003).
- Morgan-Jones, Edward, and Petra Schleiter, "Governmental Change in a President-Parliamentary Regime; The Case of Russia 1994-2003,"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2(2004).
- Oates, Sarah, "Media, Civil Society, and the failure of the Fourth Estate in Russia," Alfred B. Evans, Jr., Laura A. Henry, and Lisa McIntosh Sundstrom, eds., *Russian Civil Society: A Critical Assessment* (Armonk, New York, 2006).
- Ostrovsky, Arkady, "Is Russian Democracy becoming an Illusion?" *Financial Times*, February 24, 2004. Charap, Samuel, "The Petersburg Experience: Putin's Political Career and Russi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1, No. 1(January/February 2004).
- Raddaway, Peter, "Is Putin's Power More Formal than Real?," *Post-Soviet Affairs*, Vol. 18, No. 1(January-March 2002).
- _____, Gail W. Lapidus, Barry W. Ickes, Carol Saivetz, and George Breslauer, eds., "Russia in the Year 2003,"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1(January-March 2004).
- Ruble, Blair A., "The Two Worlds of Vladimir Putin: II. Leningrad," *Wilson Quarterly* (Spring 2000).
- Rutland, Peter, "Putin's Economic Record," Stephen White, Zvi Gitelman and Richard Sakwa, eds., *Developments in Russian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 Shevtsova, Lilia, *Putin's Russia*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

- Stoner-Weiss, Kathryn, "Central Weakness and Provincial Autonomy: Observations on the Devolution Process in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15, No. 1(February-March 1999).
- Zassoursky, Ivan, *Media and Power in Post-Soviet Russia*(Armonk, New York: M.E.Sharpe, 2004).
- Борцов, Ю., *Владимир путин*(Москва: Ростов-Дону«Феникс», 2001).
- Влотский Олег,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дорога к власти*(Москва: О смос Пресс, 2002).
- Ворожейкина, Т.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общество в России: исчерп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оцентричной матрицы развития" *Полис* №. 4(2002).
- Галкин А.А., П.А.Федосов, С.Д.Валентей, В.Д.Соловей "Эволю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федерализма" *Полис*, №. 3(2002).
- Добриниц НМ, "Российские федерализм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11(November 30, 2003).
- Крыштановская, Ольга, "Режим Путина: либеральная милитократия?" *Pro et Contra*, Vol.7, No.4(О с е н ь 2002).
- _____,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 элиты*(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4).
- Олешкин Дмитрий "Виртуальный абсолютизм" *GazetaRu*(March 22, 2004).
- Работяжев НВ, "Феномен право-левой коалиции в России: Фрон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пасения" *Полис*, №. 4(2004).
- Трегубова, Елена, *БаикйКлемровского дигера*(Москва: Объявление Маргинем 2003).
- Шербак АН, "Коал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их партий" *Полис*, №.1(2002).

“Позвольте лошадям, которыми управляют, и здания горят”

(December 2, 2003) <http://www.polit.ru>, (검색일: 2006년 1월 25일).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December 12, 200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December 12, 200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July 19, 2006.

Известия, July 23, 2000.